

News

금융당국, 바젤Ⅲ로 커질 은행 자본여력 '배당'에 못 쓰게 한다

한겨레

금융당국,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조기 시행으로 확대되는 자본 여력으로 배당금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하는 행위 하지 말 것을 은행들에 권고할 방침
금융당국 관계자, "바젤Ⅲ 조기 시행은 은행들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려는 게 기본 취지"

'가계도 기업도 창구 앞으로'...3월 은행권 대출 20조 증가

연합뉴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3월 원화대출 잔액은 1천170조7천335억원으로 전달보다 19조8천688억원 늘어...
3월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이 20조원 가까이 급증...역대급 증가세...대기업대출 8조 증가 영향...주택담보대출 4조6천억, 신용대출 2조2천억 등 가계대출도 증

금융사, 한은에 내는 담보증권 10조 줄어... 기업대출 여력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1일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 낮춰...금융사들 10.1조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담보비율 완화로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통안채 등의 담보를 덜 제공해도 되는 상황이 된 셈"

모바일뱅킹 1.2억명 돌파... 1년새 15.5% 급증

디지털타임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중복등록 포함)은 1억2095만 명으로 집계
이들이 하루 동안 거래하는 금액은 평균 6조4000억 원, 모바일뱅킹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1억 건에 육박

변액보험 수익률 급락...자산 10조원 이상 증발

뉴시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변액보험 펀드 순자산은 91조5224억원을 기록...한 달 새 13조2181억원(12.6%)이 감소
국내외 주식시장의 폭락이 변액보험 순자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중도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환급 금액이 적을 수 있어...

오늘부터 보험료 올라...일부는 인상 미루고 '절판' 마케팅 눈길

머니투데이

오늘부터 암보험과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료 인상...다만,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미루면서 고객 유치를 위한 막판 눈치싸움
저금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은 있으나, 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인상률을 최소화

3월 주식거래액과 86만개 증가...금융위기 후 최대

연합뉴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3천76만9천개로 전월 말보다 86만2천개 늘어...증가 규모는 2009년 4월 이후 약 11년 만에 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증시에서 폭락장이 연출되자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

증권사,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

뉴시스

주요 증권사 10여곳 중 5곳에서 전년대비 직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일부 증권사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린 것으로 집계
미래에셋대우, 지난해 정규직 414명 감소 비정규직 81명 증가해...메리츠·대신·신한금투·NH·하나금투,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